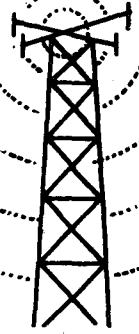


4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편집국장)

畜産人 간담회

지난 16일 농수산부가 마련한 축산인 간담회가 농수산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우리업계의 일부 단체만이 2~3회 농수산부장관과 관계관을 모시고 조찬회 등을 개최하여 관민이 업계의 현안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상공인들은 신문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많은 조찬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최고 정책 책임자인 장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통하여 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상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등이 신문·TV를 통해 전달될때 많은 양계인들은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었다.

최근 축산업계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과잉생산에 의한 불황이나 석유 파동때의 일시적 소비위축 등에 의한 불황과는 다르게 육류가 부족하여 대량 수입에 의존 하면서 겪는 불황이라서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서 정부주도로 농수산부장관이 직접 주관하여 업계 각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일반 양축가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날 업계에서 건의한 것을 보면.

1. 쇠고기 수입 확대와 국내 판매가격 억제로 한우가격이 폭락. 농가소득 증대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주시고
2. 돼지고기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양돈을 적극 지원해 자급을 유도하고, 그간 중단된 대일본 수출을 재개하여 주시고
3. 정부의 분유수입은 낙농업계의 생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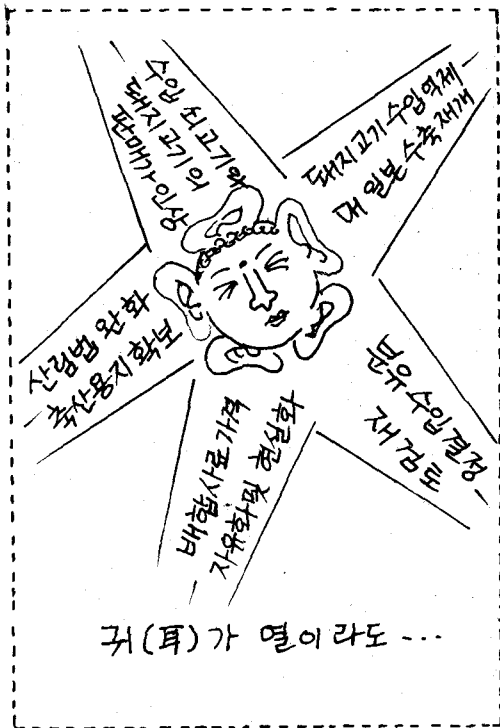
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수입
결정을 재검토 하여 주시고

4. 사료 가격도 현실화 하는 한편 배합사
료가격의 자유화 및 배합사료 원료의 해
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여줄것
5. 축산진흥을 위한 조치 확보를 위해 산
림법등을 완화. 축산 용지를 확보하게
하여 주실것.

위의 5 가지 건의 사항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문제로 이희일장관도 관계부
처와 협의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판매가격
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본회의 오세정회장은

- ① 양제진흥법제정 ② 조세감면혜택연
장 및 소득표준율인하 ③ 유통개선을 위
한 계열화생산체제육성지원 ④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제업체의 도계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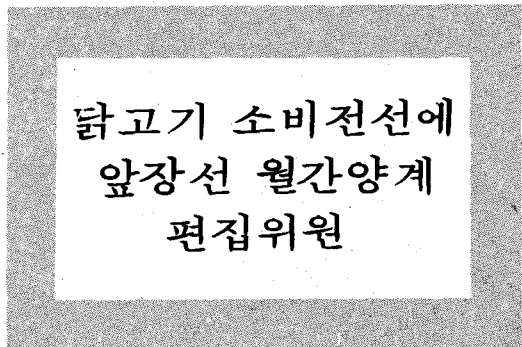


설치지원 ⑤ 적절한 제란 가격유지를 위
한 정책실시 ⑥ 쇠고기 위주의 소비패턴
을 닭고기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
⑦ 양제기계 및 기구도입의 면세조치 ⑧
효율적인 사료생산을 위한 사료가격 자유
화 ⑨ 자율방역체제의 지원과 현 방역기
구의 강화 ⑩ 정부기관의 사료와 약품의
사양시험실시 ⑪ 무허가 부화장과 미등
록종계장의 단속강화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방역, 유통기계화 등 많은 문제
점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을 대화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번 간
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참
석 범위를 축산 단체장 외에도 관련 업자
까지 확대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
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공무에 공사다망하신 장관을 모시고 하
는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
는 실무 책임자를 초청한 간담회도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시에 폭
발할 수도 있으나 회를 거듭 함에 따라서
로 건설적인 좋은 의견교환이 되므로써 업
계의 현안 문제는 행정부만이 아닌, 업계
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업계의 마음가짐
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지 편집위원들이 닭고기 소비확대 선

전에 앞장섰다.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현재의 양계 불황을 타개하는길은 소비확대와 생산조절 방법밖에 없음을 재확인하고, 우선 편집위원이 필요경비를 거출하여 신문에 닭고기 소비선전 광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은 바로 실천에 옮겨져 주간 중앙 3월 18일자 분에 반면에 달하는 닭고기 소비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다.

1970年3月18日 (26)

“만사위가 오시면

잡아주던 씨암탉”

닭고기를 즐기시는 당신이 바로
만사위며 귀한 손님이십니다.

옛적부터 반가운 손님이 오시면 마당에서 키우던 씨암탉을 잡아 상위에 올려놓는것이 가장 정성스런 환대로 인식되어 내려온 것처럼 닭고기는 끝을 보하고 맛이있는 귀한 식품으로 전래 되어오고 있습니다.

닭고기는 가장 값싸고 값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고기는 우리 국민에게 부족한 단백질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으며 아이노산의 조성이 비육류보다 우수하고 또한 저지방과 저콜레스테롤 함유량으로 육류 공급원입니다.

닭고기는 어린이의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고기는 국내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생산이 수요에 따라 확대되고 원료화 되어 인공조성된 인공 단백질의 생산 위생적인 면에서 국내에 완전 적응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닭고기는 저지방의 저지열 식품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영양성분이 유효하는 동물성 단백질이다. 비만증 등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으로 중년층에게 특히 권장되고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기러는 요양에도 좋습니다.

닭고기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닭고기는 육식계의 성장이 필요한 단백질과 무기질을 충분히 포함하여 저지방, 어린이아이를 위해 생체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닭고기의 요리법은 다양합니다.

이 작은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는 한번의 광고로 닭고기 소비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번 편집위원들이 한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수많은 결실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뜻은 크다고 하겠다.

우리 양계산업이 근대화 된후 10여년을 지나오며 수많은 불황을 겪어 왔으나. 그때마다 소비확대 선전이 수없이 결의되었으나 일부지방의 한두번 소규모 선전 외에는 실현되지 못하고 다시 경기가 호전되어 불경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통례 이었다.

이러한 업계에 이번 본지 편집위원들의 소비확대 광고는 분명히 새로운 활기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을 계기로 사료, 부화, 동물약품, 대군 양계업자가 더욱 조직적으로 양계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줄것으로 믿으며, 양계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으로 까지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 지기를 바란다.

**3 단계로 나누어
농산물 수입개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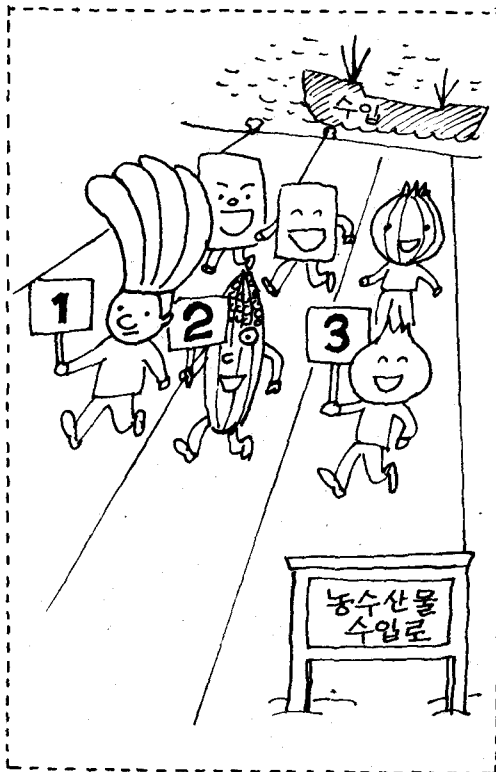
지난 7일 경제기획원은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을 3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제 1 단계는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바나나, 당밀등을 개방하고

제 2 단계는 국제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품목인 옥수수, 밀등을 개방하고

제 3 단계는 국제경쟁력이 있어서 개방해도 국내산업에 큰 영향이 없는 마늘, 양파등을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축산물(농산물 포함)의 수입정책에 대하여는 본지 3월호에 특집으로 다루었기에 본란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위의 3단계 농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이 과거 면화와 대두의 수입으로 국내 면화와 대두 농부가 없어진 전 예를 따라 3단계로 이들 농민이 도태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한낱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



물자절약으로 양계업에 생기를

정부는 범국민 소비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최근 국민소득이 1,000\$ 선을 넘자, 소비가 미덕인것 처럼 지나친 사치와 소비성향은 뜻있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73년도에 우리가 혼이났던 석유파동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이번 석유파동은 과거와는 달리 이란 사태등으로 석유생산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73년도보다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석유 이외에도 각종 원자재 값이 모두 폭등하므로써 국내 물가를 크게 자극하고 있어, 올해 물가 상승율도 당초 정부가 계획한 것 보다 더욱 높은 14%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계업자도 생산비를 14%이상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미년이 될것 같다.

유류파동,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국제수지 균형을 악화시켜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크게 만들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밑에서는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여 소비를 절약하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게 된것이다.

신문 보도를 보면 17일 서울시는 에너지를 비롯한 소비절약을 위해 3월25일부

터 유흥접객업소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업소와 제조업에 정기 휴일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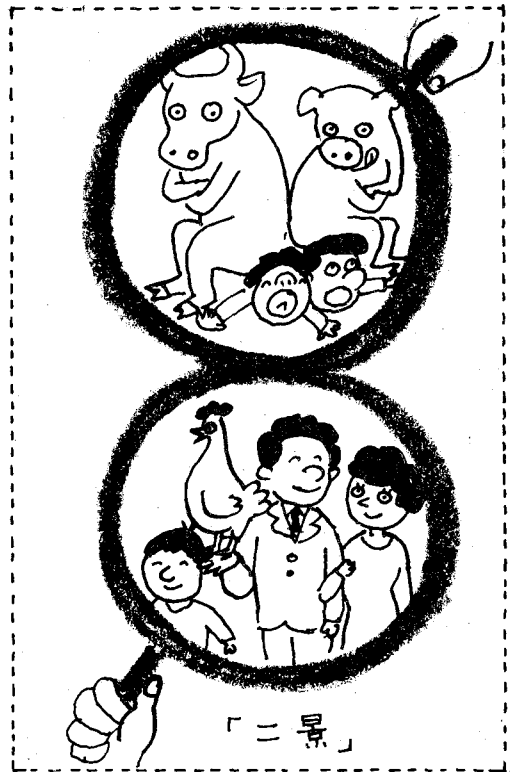
일반 유흥음식점 (요정, 싸롱) 유흥전문음식점 (카바레, 나이트 클럽) 등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월 2 회 휴무하며, 전문음식점(한식·양식)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제과점 다방등도 월 2 회 휴무를 區별로 반씩 휴업하며 주유소 냉동업체 약국도 같은 휴무를 실시하고 특히 정육점도 월 2 회 구별로 절반씩 휴무하게 된다. 또 보도에 의하면 월 2 회 정도의 無肉日도 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반 단체의 야유회나 놀이등도 규제할 것으로 알려져, 낭비풍조를 없애고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한다.

양계업자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믿으며 다음 몇가지는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첫째, 소비절약 운동과 각종 음식점의 월 2 일 유업과 無肉日 제정은 현재 닭고기 60% 이상이 영업용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볼때 큰 소비 위축이 예상되며, 시장·슈퍼마켓·백화점등의 휴무일에는 부로이러가 출하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소비위축에 대처하기 위하여, 값싸고 질이좋은 닭고기의 소비야말로 실제로 소비를 절약하고, 가계에 혹자를 가져오는 길임을 소비자에게 계몽 선전하여 부족한 쇠고기·돼지고기를 대치하여 닭고기 소비를 증대시키고, 자율적인 생산조절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여 양계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둘째, 더욱 적극적인 물자절약으로 계사의 단열재 사용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각종 연구와 사료의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사료의 제정 및 사료원료의 부두하역에서 부터 사료공장까지 배합사료의 양계장까지 운반 과정에서 사료손실량을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되겠다.

양계장에서의 보관중 쥐등 설치류와 보관중관리 소홀에 의한 손실, 계사내에서 각종 급이기 불량과 관리부주의에 사료손실등도 막대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물자 절약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대대적인 우리 업계내의 사료낭비 방지운동을 전개함도 바람직 하겠다.

이러한 물자절약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 업계를 반석위에 올려 놓으며 생산비를 절감하여 나자신의 이익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기 때문이다.